



기생충弘報館 을 이전하고

김 창 현

기생충에 대한 올바른 계몽 지도

한국기생충박멸협회가 설립된지 17년이 지난 지금, 과거 기생충 왕국이라 불리웠던 불명예스러움을 없애고자 학계의 뜻있는 분들이 모여 기생충 퇴치사업을 전개한 이래로 국민 건강관리의 일환인 기생충 구

제에 현저한 공헌을 하였음은 누구나 공인하는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동안 기생충 질환의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국민 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하고, 정부의 기생충관

리시책에 호응하여 당 협회는 계몽 교육, 구충시료, 조사연구, 국제교류 등 다각적인 사업을 꾸준히 추진한바 현재는 많은 감소 추세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아직도 이웃인 일본이나 선진국에 비하면 높은 감염률에 있는 실정으로 이는 국민 각자가 기생충에 대한 인식부족과 충분하고 올바른 지식이 결여된 실정인바 세삼 개탄치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 정부는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1976년 기생충 홍보관을 개설하여 각종 기생충의 전시물과 생활사, 감염경로, 인체에 주는 위해 등 시청각 교재, 기자재 등을 완비하여 전시관 관람, 시청각교육, 계몽강좌 등을 전문기관인 보건소 요원이나, 의과대학, 보건전문대, 간호대학, 산업장의 보건담당자, 각급학교 특별 써클반원들에게 세미나나 간담회를 통하여 기생충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위와같은 계몽활동을 하여왔었고 어느때이고 어느대상에게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 해도 전체 국민의 다수가 계몽영역에 접근치 못함으로 인한 무관심하고 안일한 태도는 모든 구충대책에 차질과 허점이 돌출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시중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유명

제약회사의 제재인 구충제만 복용하면 된다느니 혹은 기생충은 다른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지 나나 내가 죽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또는 뇌염이나 콜레라 처럼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병은 아니다라는 자기 스스로 쉽게 판단하고 사고하는 생활 습관이야말로 더욱 퇴치사업에 장벽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열이 나고 통증이 있어 상처가 눈에 보이게 커질때 병원을 찾아가는 등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서야 뒤늦게 깨닫게 되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구조는 하루빨리 시정되어 사전에 기생충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예방조치를 취하여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함이 선결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몇가지 실례를 들어보면 유구 조충에 감염된 50여세의 남자가 치료 부주의로 낭미충이 뇌에 있는줄도 모르고 선천적인 간질 증세로 알고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오다가 뇌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애처로운 이야기, 각혈을 하여 내과전문의사로부터 오진을 받아 일년동안 결핵 치료만 하였었던 중년 여인이 나중에서야 폐흡충이라는 것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다는 사례, 고급 벤츠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간흡충에 감염되어서도 돈으로 약만 복용하면 낫게 되겠지 하며 자처하는 오

만 불손한 사고방식의
 목재상 회장 아름다운
 아가씨가 회충이 담관
 속에 들어있다는 전문
 의사의 진단으로 고민
 하면서 간단한 치료약
 은 없겠느냐며 물어오
 던 일, 또한 기협에 검
 사를 의뢰하였다가 회
 충의 감염 결과 통보
 와 함께 구충제를 우
 송하였더니 얼마후 회
 충이 36마리나 나와
 고맙다며 편지와 전화
 로 인사와 더불어 격

려편지까지 보내왔던 일, 얼마전시
 내 모 후생복지시설에 요충검사를
 실시 하였던바 전체의 90%가 충
 란이 검출되는 사례 등은 적어도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서 있었던 사
 실로써 국민의 건강관리에 있어 얼
 마나 소홀하였던가 새삼 경종을 울
 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하여, 보건사회부는 5년마
 다 기협과 공동으로 전국 기생충감
 염실태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제 1차는 1971년도 통계 숫자이나
 전 국민의 약 83%가 각종 기생충
 에 감염되어 있었던 실태이고 작년
 '81년도에도 인구조사 구역을 지
 정하여 전국적으로 실시 하였던바,
 얼마전 관계 당국이 일간지에 보도
 한 내용을 보면 감염률이 많이 저

계몽 교육 사업안내

구 분	내 용
전시물 관람	기생충표본, 현광, 생활사, 감염경로, 기생충집합 및 피해예방 방법등을 소재로 한 전시물 관람
보전교육	영화, 슬라이드 상영 및 계몽강좌 실시 (필요시에는 전문학자 초빙)
상담 및 진료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 기생충 상담, 검사, 투약실시 및 임상적 치료 환자는 전문기관에 안내
학습장 활용	보전관계 각종학교 학생 및 각종 보전요원의 학습장 활용
순회교육	내관이 용이치 못한 각종학교, 사립장, 기타 단체를 순회 시정각 교육 및 계몽강좌 실시
가두 홍보활동	동행인이 빈번한 지하도 등에서 사진전시판설명과 각종 유인물을 배부하고 상담과 검진 안내를 실시함.

시간 안내 : 평 일 09:00 ~ 15:00

토요일 09:00 ~ 12:00

단, 보전교육과 순회교육은 실시일 5일전에 전화연락 요망

하되였다 한다.

제 5 공화국 출범과 함께 복지국
 가 건설에 정부와 온 국민이 혼연
 일치되어 힘을 기울이는 이때 또다
 시 우리 후세에까지 기생충을 보유
 케 되는 부끄러운 국민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간절한 소망이다. 적어
 도 '80년대 후반까지는 기생충 없
 는 명랑한 복지국가 건설에 이바지
 하는 뜻에서 기생충 박멸사업도 하
 루속히 목표달성이 되어 앞으로 있
 을 아시아 게임과 '88 올림픽 대회
 를 맞이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
 진에 일환인 기생충 검사에 너도나
 도 적극 참여하기를 권장하는 바이다.

(필자=기협 서울지부 홍보관장)